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홍성도 경영학 박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창업보육센터의 개념

1.2.1 창업보육센터의 정의

1.2.2 창업보육센터의 필요성

1.2.3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이후 내용은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창조성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지구촌시대에 기업의 경영환경과 금융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의 유연성, 자금의 유동성, 경영의 투명성 및 실용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의 기업문화는 대기업과 간접금융 중심, 조직적 의사결정시스템, 학벌주의, 정부주도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직접금융 중심, 전문가 및 능력 중시, 자생적 민간 경제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주주이익의 극대화, 자기자본의 충실회, 지식과 기술중시 경영이 가속되면서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적극화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금융시장은 담보중심의 간접금융이 약화되고 사업성과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증권거래소, 코스닥 및 장외시장, 벤처캐피탈, 엔젤이 활성화되는 직접금융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패러다임은 매출액 중시에서 이익과 현금흐름 중시로, 하드웨어 중시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경영시스템으로, 다각화 경영전략이 핵심역량 강화, 아웃소싱으로, 두뇌를 중시하는 효과적인 경영으로, 아미추어보다는 전문적인 프로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정부의 벤처드라이브 정책은 예전의 수출드

라이브 정책에 견줄 만 하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직접금융의 활성화, 기술인력 공급 및 입지공급의 원활화 등으로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입지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원책 중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육성이라고 볼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육성을 통해 산·학·연 협동으로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며 창업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수출주도형 제조업은 이미 개발도상국의 추격에 국제경쟁력에서 많은 취약성을 드러냈고, 시장의 글로벌화와 IMF라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편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에 창업과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 8월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2002년까지 5년간 연평균 4천 개씩 총 2만개의 벤처기업 육성 계획을 세우고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의 설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은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란 새로이 창업하여 자생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를 입주시켜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생존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중심지로, 기술혁신 결과의 기업화 촉진, 새로운 사업의 창출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창업보육센터는 1994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처음 설립한 이래, 과학기술원(KAIST), 생산기술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

트웨어 지원센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전국 대학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바, 2000년 6월 말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 지원 226개와 정보통신부 지원 59개 문화관광부 지원 및 과학기술부 각각 1개씩으로 총 287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최근 몇 년간의 양적인 팽창과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의 성공률에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현황파악이나 연구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기존 연구와 국내외 운영실태 및 지원내용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 창업보육센터와 외국 창업보육센터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위치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전략에 대한 도출하여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제2절 창업보육센터의 개념

1.2.1. 창업보육센터의 정의

창업보육센터의 유래는 1959년 미국 뉴욕 Batavia에 소재한 Batavia Industrial Center의 설립을 시초로 1981년에는 10여 개에 불과하던 것이 1985년 미국창업보육센터협회(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 NBIA)의 설립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여 1998년 현재 미국에는 587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중이다. 전세계적으로 1,100여 개(1997년 현재)의 보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하나의 사업으로써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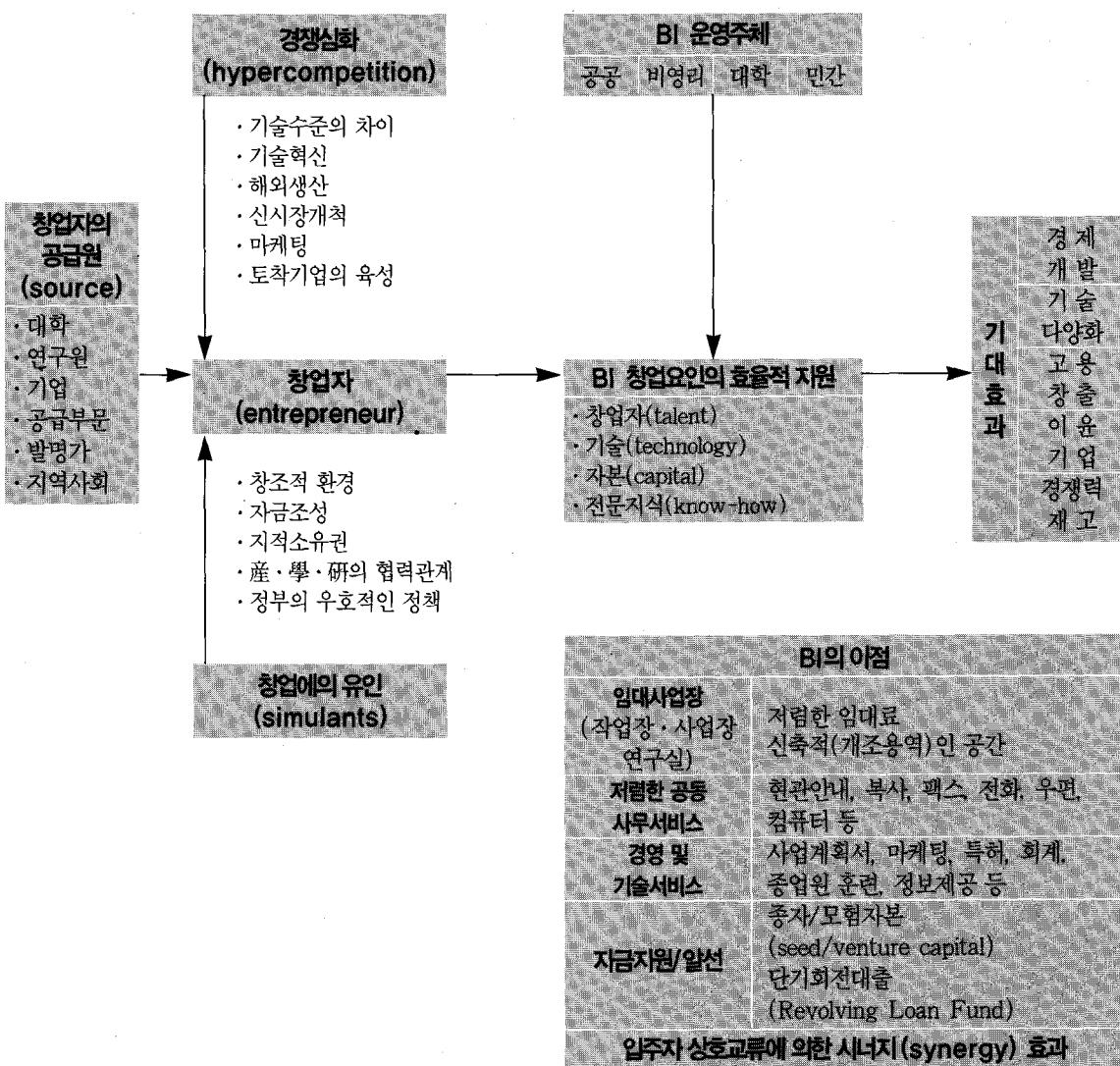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방정부, 민간기관 등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창업



자들을 입주시켜 제반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생창업기업의 생존을 제고, 기술혁신결과의 실용화 촉진, 신 사업 창출, 고용창출, 지방경제의 활성화, 기술인력의 양성, 대학 및 연구소 연구기능의 활성화 등으로 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창업자에게 자립경영과 성장을 도모하는 창업과정의 제반 지원체계 및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외형상으로 보통 20~30개의 다수업체가 입주한 건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3 가지 주요 기능을 갖는 면에서 이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첫째, 개조가 용이한 입주공간과 저렴한 임대료 및 관리비 둘째, 공동시설 이용, 사무 및



(그림 1-1) 창업보육센터의 개념과 역할

자료 : 'The New Business Incubator Linking Talent, Technology, Capital and Know-how', 1986[1]

행정지원 세제, 경영·기술상의 제반 전문지식 및 정보 지원 등이다.

창업자는 창조적인 환경조성 등에 의한 창업에의 유인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사내 벤처 및 R&D 부문으로부터 출현하게 되지만, 기술수준의 차이(gap), 기술혁신, 마케팅 등에 의한 경쟁의 심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 내에 기업을 발굴하고 적정기간 동안 양육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내의 산업단지에 정착시키고,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속적인 협조 및 산·학·연 협동체제를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쌈 임대료로 건물을 임대하며, 각종 사무 기기 및 회의실 등의 공동활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술창업자들의 운영비 부담을 극소화시키고, 입주기업들에게 경영지도, 대학 및 연구소 연구인력들에 의한 기술지도, 각종 자금, 정보, 기술, 경영지원 및 알선을 통해 창업초기의 중소기업들의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험에 의하면 일반 중소기업의 창업성공률은 10~20%인 반면,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중소기업의 창업성공률은 70~8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은 창업보육센터의 개념과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1.2.2. 창업보육센터의 필요성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든 나라가 그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적이고도 가장 종합적이고 강력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사회의 도래, 수요자 욕구의 다양화, 급속한 기술발전 등 사회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에서 생산과 소비의 주역인 젊은 신세대들의 독립성향과 연계되어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내에서의 연구 활성화와 기술 창업 지원 등으로 연구활동에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에서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고급인력양성과 연구능력 배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창업보육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중심 발전방식의 중요수단을 제공해 준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술개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분산화 된 지역기술개발 주체들의 네트워크 조직에 의한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는 기술혁신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 자체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연구결과의 신속한 기업화를 추진하고, 생산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보육센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①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컨설팅, 연구접촉, 대학 등으로부터의 스피n 오프 (spin-off) 활동이 기업화됨으로써 창업보육센터가 첨단산업발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② 고용창출과 지역 잠재기업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 자체의 고용창출효과는 수천 명의 고용을 일시에 창출하는 대기업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첨단산업부문의 첨병역할을 하는 신설기업체의 창업과 고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③ 산업기반의 다양화와 첨단산업부문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서 이를 지역 내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촉매와 같은 구실을 할 수 있다.[2]

④ 지역개발사업과 민간의 협조기회를 조성하게



한다. 창업보육센터의 건립사업은 지방정부 이외에도 관련기업체, 대학 등의 협조를 통해 설립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과제인 지역경제개발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2.3.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창업보육센터는 설립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최근에 설립되는 창업보육센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가. 설립목적에 따른 분류

1)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 BI)

대학, 공공기관, 지방정부, 민간기관 등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창업자들을 입주시켜 제반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생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결과의 실용화촉진, 신 사업 창출, 고용창출, 지방경제의 활성화, 기술인력의 양성, 대학, 연구소 연구기능의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의 개발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2) 기술보육센터(Technology Incubator ; TI)

기술보육센터는 기술개발단계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기술적인 아이디어 또는 개발중인 기술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는 전문인력의 파견을 통한 기술지도, 공동개발, 필요자금지원 및 알선, 각종 실험계측장비와 컴퓨터 등 관련 기기 사용의 편의제공 등이 주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실, 전신 전화시설 등 각종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3) 기술혁신센터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 TIC)

기술혁신센터는 대학 캠퍼스 또는 연구기관 내에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투입하여 기업화를 목표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과학단지(science park), 기술단지(technology park)의 연구개발단계상으로는 TI의 대상영역과 비슷하다.

4) 기술창업지원센터(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 TBI)

기술창업지원센터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방정부, 민간기관 등이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한 곳으로 기술창업보육센터라고도 한다. TBI는 이미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즉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점에서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는 TI 또는 TIC와 구분되며, 그 대상이 기술집약적 또는 기술수준이 높은 창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BI와 구별된다.

기술창업보육센터는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좀더 확대된 개념으로서 연관 분야의 R&D 센터, 기업지사 등을 묶어서 연구개발, 상품화, 제작 등을 이끌어내는 연구/과학단지, 기술단지 및 첨단산업기술도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사업의 운영주체에 따라 창업보육사업의 형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단체 등 공공기관 주도형, 대학 주도형, 민간기업 주도형, 정부 주도형 등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3]

나.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1) 공공기관 주도형 BI

지역개발 및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설립·운영하며, 정부 또는 관련기관은 입주기업에게 작업실, 설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 내 대학, 상공회 의소 등은 경영 및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방에 소재 한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에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2) 대학 주도형 BI

대학 및 주변연구기관이 공동출자·운영하여 첨단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대학 인근에 연구단지 등을 조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대학과 기업간의 기술교류, 정보교환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이 연구한 첨단기술을 창업보육센터에 이전함으로써 산업화에 기여하는 형태이다.

3) 민간기업 주도형 BI

민간기업이 투자확대 및 이익추구를 위하여 단독으로 설립·운영하는 형태로 다른 형태의 보육사업에 비하여 임대료가 비싸며,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제공과 주식취득 등이 행해진다.

4) 정부 주도형 BI

정부가 창업보육센터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운영

〈표 1-1〉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구분

구 분		특 징
기준	유 형	
자 금 출 연 자	공공 B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립 ·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지역경제성장이 주된 목표
	대학부설 B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서 설립한 BI · 지역사회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여 대학의 이미지 제고 · 연구비 조성, 수익금 활용 등을 통하여 대학의 재정 자립도 강화 · 연구개발결과의 조속한 상업화 등 실질적인 산한 협동의 장으로 활용
	민간 B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기업에서 설립한 BI로 영리 추구가 목적
	민간/공공 복합 B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및 대학, 공공 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설립
지 리 적 위 치	대학인접 B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축적된 기술 및 서비스를 주로 활용 ·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에 매우 적합 · 연구결과의 조속한 사업화, 대학의 기술/인력 활용 가능
	도시지역 B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부지, 건물, 설비 등의 자산을 쉽게 구입 · 시장 접근, 마켓팅활동 유리
보 육 대 상 기 업	농촌지역 B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유의 자원을 손쉽게 이용 ·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특성화된 B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산업에 국한, 창업자 입주/지원/육성 · 해당 업종의 전문가 확보 필요
	비특성화된 B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모두 수용 · 전반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매니저) 확보 필요

자료 :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사업의 운영실태와 효과적인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1999[4]

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 보육사업실시 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및 투자손실보전제도 등으로 지원하며, 전담기관의 채무보증으로 보육센터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 등 자금지원이 행해진다.

이를 유형별로 특징을 나누어 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이 외에도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첫째, 특정한 산업에 국한하여 창업자들을 입주시켜 지원·육성하는 특성화된 창업보육센터, 둘째, 다양한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모두 수용하는 비 특성화 창업보육센터로 구분할 수도 있다. 특성화 창업보육센터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창업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SBI)를 들 수 있다. SBI는 앞으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창업보육센터는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설립목적 등에 따라 기능, 입주기업의 범위, 관리방식, 지원서비스의 범위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며, 각 창업보육센터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 나름대로의 방식을 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발행 2001/5/6